



문서번호 천안교 제2026-47호
시행일자 2026. 5. 21.
수 신 제위 신부
참 조 본당 수녀, 사목회장
제 목 사제 성화를 위한 기도의 날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수	번호		재	
			·	
처	리	과	공	
			람	
담		당		
당		자		

+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6월 12일)을 맞아, 각 본당에서 신자들이 교구 사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만 사제 성화의 날이 교구 사제 피정 일정과 겹치고, 더 많은 신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6월 7일) 교중 미사 때 이 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각 본당에서는 본당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교구 모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사제 성화의 날 의미와 공동기도 양식. 끝.

천 주 교 안 동 교 구

사 목 국 장

황 영 화

마 티 아

신 부



1. 사제 성화의 날의 의미

사제 성화의 날은 사제 성화의 날은 한국 천주교회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함께 지내는 날로,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다짐하고, 신자들은 사제직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입니다. 이날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가 1995년부터 해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의 중요한 의미는 사제들이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의 직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거룩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봉헌함으로써 교회의 목자들을 영적으로 동반합니다.

예수 성심 공경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게 합니다. 사제직은 특별히 성체성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사제들이 예수 성심을 닮아 하느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참된 목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2. 사제 성화의 날 공동기도 양식

※ 아래의 내용은 본당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도 됩니다.

1) 미사 전 묵주기도 한 단

(해설) 오늘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신 사랑의 신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믿고 흠송하며, 주님과 더욱 깊이 일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며, 사제들이 예수 성심을 닮은 참된 목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올해 6월 12일 사제 성화의 날은 교구 사제 피정과 겹치므로, 오늘 이 미사 안에서 교구 사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고 충실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빛의 신비 5단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묵주기도가 끝나면 : 묵주기도의 나머지 신비는 같은 지향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이어서 바치라고 권고하고, 입당성가로 미사를 시작한다.)

2) 보편 지향 기도에 아래 지향 포함

- 교회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의 주교와 사제들이 예수 성심을 닮아 겸손하고 충실한 목자로 살아가며, 말씀과 성사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거룩하게 이끌게 하소서. 또한 맡겨진 양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참된 목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3) 영성체 후 묵상기도

(해설자가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영성체 후 묵상 때 바친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해설) 다함께 교구 사제들과 본당신부님(들)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겠습니다.

(이후 미사로 이어진다)

4) 그 외 신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실천

- 사제들을 위한 기도 바치기
특히 은퇴 사제, 병환 중인 사제, 선교지나 특수 사목지에서 봉사하는 사제들
- 오늘 하루 작은 불편 하나를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봉헌하기
- 비판보다 기도 먼저 하기
- 본당 신부님께 감사 문자나 짧은 편지 보내기(수녀님이나 다른 교우들에게도)
- 성소자와 신학생을 위하여 기도하기
- 평일 미사나 성체조배에 참석하기
- 가정이나 단체 모임에서 사제들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기